



JESUS VISION CENTER

Joel 2:28

Later, I will give my Spirit to everyon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have dreams,
and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류동준 · 유소영 선교사

2022년 3월

강변교회

Mission Letter



Shalo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최근 오래전에 한 설교자로부터 들었던 예화가 불현 듯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동토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호수는 얼어있었고 그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호수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호수가 얼마나 단단하게 얼어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그 사람은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차 한 대가 그에게 비키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그가 길을 비켜주자 그 차는 과감히 호수 위로 내달렸고 이내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호숫가에 머뭇거리며 서 있던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호수의 얼음은 이미 자동차도 지나갈 정도로 단단하게 얼어 있었지만 자신이 호수의 얼음 위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해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내딛는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선교지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 말의 뉘앙스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것도 없지만 편법(예를 들어 약간의 뇌물 같은 것)을 쓰면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없다.' 얼마 전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000은 합니다.' 전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하나님은 하십니다 1 -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돈으로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서양의 선교방식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오래 전 서구의 선교는 풍부한 물질에 기반 한 선교였습니다. 선교지에 의류와 양식을 나누어 주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과 학교를 세우는 등의 교육 사역에 엄청난 물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수혜를 받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서양의 선교방식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열매가 별로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과거 서구의 물량주의 선교방식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서구의 물량주의 선교방식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 없이 선교가 가능한 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물질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물량주의 선교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물질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선교인가 하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사역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말이지요. 없어서 ‘어떻게 사역하나?’ 고민하지 않도록, 남아서 그것을 허투루 쓰지 않게끔 하십니다.

연초 처음 캄보디아 땅을 밟은 후 왕립대의 언어연수 과정을 밟을 때 함께 공부했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작년 말 한국에 다녀왔는데 어떤 분이 캄보디아의 가난한 빈민들에게 식료품을 사서 전해주었으면 한다면 현금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500불을 줄테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의 빈민들에게 쌀과 라면 같은 식료품을 사서 나누어 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으며 생생한 음성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사역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루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500불은 저에게 단순한 500불이 아니었습니다. 새해 첫 주 주일예배를 드린 후 연락을 받았는데 그 후원금으로 20가정을 선발하여 각 가정 당 쌀 20kg, 라면 한 박스, 간장 한 병, 굴소스 한 병, 마스크 3박스씩 나눠준 것이 마을 사람들을 더욱 호의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심니다 2 - 나눔으로 더 풍성하게



지난 1월 마을 주민들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회에서 마스크와 의약품 그리고 갓난아기 분유를 보내주었습니다. 캄보디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이 의약품들이 이 위기를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이게 캄보디아에 들어오면 급속도로 번져갈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아나나 달라 일찍부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캄보디아는 진작부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오미크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도 이마에 갈때마다 열패치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며 약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회에서 보내준 약과 마스크가 마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사진에는 없지만 얼마 전 교회 집사님이 옷 정리를 했다며 보내주신 것들을 4박스 정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전처럼 한 집 한 집 방문하며 나누어 주었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한 곳에서 나눔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갑자기 물려들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네요. 사진으로 남기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옷을 보내주신 집사님도 좋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3 - 다시 시작하는 영어교육

작년 초 영어교육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 락다운이 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멈추었던 영어교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매번 교육 자료를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듯하여 영어 교육책을 만들었습니다. 알파벳과 파닉스를 가르치기 위한 책인데 지난 1월 18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3월 16일까지 꼬박 두 달 만에 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 몇 가지 있다면 처음에는 무려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여 책을 다 나눠주었는데 2주 정도 지나는 사이 다들 포기하고 단 4명의 아이들만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외운 아이는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말로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별 관심도 없고 열의도 없다는 점입니다. 공부보다는 당장 집안일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임에도 학교에 가지 않고 소를 돌보고 농사를 돕는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가 늦게서야 학교를 다니게 되어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2~3학년을 다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마는 아이들도 많구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공부를 해 봐야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정작 취업할 곳이 없어 다시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렵게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나와 취업하려고 해도 돈으로 취업이 결정되는 사회 부조리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성적은 받아도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절망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외국어를 배워 해외 취업을 나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캄보디아의 인력 수출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취업 자격을 얻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부해 봐야 쓸 데가 없으니 공부를 안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부를 통해 미래가 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난달에 아들 예원이와 딸 예슬이 두 아이 모두 오미크론이 확진되어 열흘 정도 자가 격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확진되고 후에 아빠 엄마가 확진이 되면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니 아이들이 확진된 김에 아빠 엄마도 같이 확진되자는 마음에 아이들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는데도 다행인지 저희 부부는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지 마을 주민들 가운데도 오미크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매일 사역지에 가는 저희 부부는 확진이 되지 않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가족들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뜨러베앙로까 마을,
트머언다엣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크게 아프거나 하는 사람은 없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3차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 크게 아픈 사람 없이 무사히 오미크론 유행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을 위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마을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고 우상의 문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간단한 상처치료와 의약품을 나누는 사역을 위해 의약품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센터를 위해

4월 중순이 지나면 캄보디아에 우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번 꼴로 스콜이라는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얼마나 세차게 내리는지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내립니다. 게다가 한순간에 많은 비를 뿌리기 때문에 길이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우기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주일 예배와 영어 교육 사역입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이 되다보니 비가 오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을이라 렌트할만한 건물도 없고 방법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방법 밖에 없는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놓는 바람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속히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